

#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21일 웨이보 공개)

##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왕호응 씀)

이것은 제자가 나에게 물었던 사례이다. 기율검사위원회에서 장부를 조사하여, 오늘 직장으로부터 지난 몇 년 동안의 급여 보조금 8만여 원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수중에 그렇게 많은 돈이 없어, 친구에게 4만 원을 빌리려고 점을 쳤는데, 빌릴 수 있겠는가?

계묘년(癸卯年) 계해월(癸亥月) 경오일(庚午日) 갑신시(甲申時) (순공(旬空): 술해(戌亥)에, 택천괘(澤天夫)가 택뢰수(澤雷隨)로 변하는 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癸亥月 庚午日 甲申時

八卦

澤天夫(坤土宮) 之 澤雷隨(震木宮)

應 兄丁未 蓋乙花鞍	蛇 兄丁未 蓋乙花鞍		伏 孫癸酉 帳馬災害
孫丁酉 帳馬災害	勾 孫丁酉 帳馬災害		世 伏 財癸亥 空 閏地花劫
財丁亥 空 閏地花劫	朱 財丁亥 空 閏地花劫		伏 兄癸丑 馬月乙天
世 兄庚辰 花鞍馬月	青 兄甲辰 花鞍馬月	才	伏 官乙卯 將德花
官庚寅 亡地	玄 官甲寅 亡地	才 應 伏 父乙巳 馬德亡	
財庚子 閏花馬災	白 財甲子 閏花馬災		伏 兄乙未 蓋德乙花鞍

歸魂卦

空亡: 戌亥

內卦伏吟

卦身: 兄辰

世身: 四爻

처재(妻財)를 용신(用神)으로 삼는다. 처재가 양현(兩現)했으니, 일(日)에 충(沖)한 처재 자수(子水)를 용신으로 삼고, 다른 하나는 참고로 삼는다. 일이 충하여 암동(暗動)하니 자금(資金)이 변화하는 상(象)이며, 월(月)이 방부(幫扶)하여 왕상(旺相)하니, 돈을 빌릴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처재 해수(亥水)가 공망(空亡)이고 응효(應爻)에 합(合)하여 가버렸으며, 내괘(內卦)가 복음(伏吟)이니, 비록 빌릴 수는 있으나 다소 뜻대로 되지 않는 면이 있다.

후에 1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왜냐하면 상대방의 남동생이 북경(北京)에서 호텔을 개업하여 많은 돈을 빌려 가버렸기에, 수

중이 궁색하여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효(三爻)는 형제(兄弟)가 되는데 형제에 치(值)했으니 더욱 그러하며, 처재가 형제 진토(辰土)에 입묘(入墓)하니, 이는 곧 돈이 남동생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다. 처재가 초효(初爻)에 있으니 적음을 나타내고, 수(水)는 1이 되므로, 1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21일 웨이보 공개)**

会借钱给我吗？（王虎应写）

这是徒弟问过我的一个案例。纪委查账，今天单位通知把这几年的工资补助8万多需要退回去。但现在手头没有那么多钱，占向朋友借4万元，能不能借给？于癸卯年癸亥月庚午日甲申时（旬空：戌亥），得泽天夬之泽雷随。

騰蛇	兄弟未土”	
勾陈	子孙酉金’世	
朱雀	妻财亥水’	
青龙	兄弟辰土○	兄弟辰土
玄武	父母巳火	官鬼寅木○应
白虎		官鬼寅木
	妻财子水’	

以妻财为用神。妻财两现，以日冲的妻财子水为用神，另外一个做参考。日冲暗动，资金变化之象，月帮扶旺相，说明可以借到钱。  
 但妻财亥水空亡，被应爻合走，内卦伏吟，虽然可以借到，有些不如意。  
 后借给了1万元，因为对方弟弟在北京开宾馆，借走了很多钱，手头紧，没有那么多了。  
 三爻为兄弟，值兄弟更是，妻财入墓在兄弟辰土，就是钱到了弟弟那里。妻财在初爻表示少，水为一，故借给了一万元。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21일 웨이보 공개)

### 소강절(邵康節) 전기(傳奇)

#### 제11장 명사(名士)들이 서로 교유하니, 낙양성(洛陽城)의 유학 풍토가 지음(知音)을 모으다

낙양은 예로부터 문맥(文脈)이 깊이 서린 요람이었으며, 북송(北宋) 중기에 이르러서는 천하의 문신(文臣)과 대유(大儒)들이 한데 모이는 중심지가 되었다. 조정의 공신과 귀족, 사림(士林)의 현인들이 대부분 이곳을 택해 자리를 잡으니, 한 시절 명망 높은 고관들과 성리학의 선구자들이 낙수(洛水) 양안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문풍이 성대해가기가 중주(中州)에서 으뜸이었다. 소옹(邵雍)은 안락와(安樂窩)에 편안히 거처하며 산림에서 홀로 닦던 외고집을 벗어던지고, 큰 도리는 서로 갈고 닦아야 하며 학문은 부딪혀야 깊어진다는 이치를 깊이 깨달았다. 그는 일 년 내내 저 잣거리를 거닐고 인간 세상을 관조하며, 선천(先天) 역학(易學)의 이치를 인간 세상의 흥망성쇠와 융합하여 온전히 꿰뚫었으니, 학문적 소양은 갈수록 원숙하고 두터워졌고 마음가짐은 더욱 담박하고 통달해졌다. 비록 평생 벼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은거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아 관직이나 품계의 후광은 없었으나, 그의 고결한 품성과 독보적인 학식은 이미 낙양 사림에 조용히 퍼져 당대 명사들의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 시절 북송 조정에는 이름난 신하들이 연이어 나와, 사마광(司馬光)·부필(富弼)·여공저(呂公著) 등 조정의 주석이 되는 현신들이 모두 조정에 서서 천하를 가슴에 품었다. 그들은 유학의 명리를 깊이 연구하고 군자의 풍모를 굳건히 지켰으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권세에 빠지지 않고 평생 학문에 전념하며 가르침을 널리 퍼는 것을 숭상했다. 한편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형제는 낙양성에 은거하며 의리(義理)를 정밀히 연구하여 성리학(性理學)의 새로운 물줄기를 열었고, 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며 당대 학계의 새로운 풍토를 이끌었다. 여러 명사들은 처한 진영이 다르고 학문의 주안점이 저마다 달랐으나, 소옹이 벼옷을 입은 채 도를 깨달아 하늘과 인간의 이치에 통달하고 안빈낙도(安貧樂道)한다는 명성을 듣고 모두 흠모하는 마음을 품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공명의 높고 낮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오직 이 당대의 대유들만은 겉껍데기 같은 신분을 넘어 오직 학식과 지조로써 지음을 논했기에, 소옹이 관직이 없고 누추한 골목에 산다고 해서 조금도 가볍게 보지 않았다.

이때부터 안락와에는 수레와 말이 줄을 이었고, 고결한 선비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다. 사마광은 오직 참된 자세로 학문에 정진했기에 소옹이 지닌 세속을 초탈한 지혜를 우러러보았고, 부필은 모진 관직 생활을 겪으며 세상사의 흥망을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난세를 통찰하고 운수를 추론하는 소옹의 드넓은 안목에 감탄했다. 여공저는 유학 경전을 깊이 연구하고 선비의 예법을 엄격히 지켰기에,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실천하고 두터운 덕성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소옹의 품격을 높이 찬사했다. 정호와 정이 형제 또한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성리학에 몰두하면서, 자신들의 학문이 선천 역학과 서로 맞물려 더 깊어지기를 갈망했다. 이들은 나랏일을 돌보고 학문을 연마하는 와중에 늘 손을 잡고 소옹의 문을 두드렸으며, 조정의 이권이나 정쟁은 입에 담지도 않은 채 오직 진리를 논하고 학문을 닦는 것만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현명한 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소옹은 언제나 차를 끓여 대접하며 정좌한 채 도를 논했다. 누추한 방 안이었으나 맑은 차 한 잔과 책 향기가 가득했고, 손님과 주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21일 웨이보 공개)

인은 모두 기쁨에 겨워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대화에 몰두했다. 저마다 견해를 아낌없이 피력하고 서로 토론하며,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학문적 보탬이 되었다. 조정의 명신들과 대유들은 유가의 예법과 경세(經世), 그리고 수신(修身)에 뛰어났기에 세상의 강령과 치국의 도리, 민생의 법도를 깊이 파고들었다. 반면 소옹은 선천의 수리(數理)와 하락(河洛)의 본원, 하늘과 인간의 조화에 독보적이었기에 천지의 운행과 고금의 역사, 흥망성쇠의 법칙을 꿰뚫고 있었다. 한쪽은 인간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성현의 입세(入世) 학문을 깊이 갈고 닦았으며, 다른 한쪽은 천도(天道)에 근원을 두고 우주 본연의 도리를 탐구했으니, 학문의 길과 주안점은 저마다 달랐으나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진리로 귀결되며 서로를 온전하게 보완해 주었다.

도를 논하는 사이에 유가의 돈독한 예법과 세상을 다스리는 기상은 소옹의 선천역학, 그리고 천인의 수리와 깊이 융합되었다. 사마광과 부필 등은 조정에서의 식견과 국정 운영 경험으로 소옹의 흥망 추론을 검증하여, 오묘한 역학의 이치가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사의 변천을 읽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만들었다. 소옹은 천도의 수리와 음양의 조화로 그들을 일깨워, 전통 유학이 교조적인 예법과 인간 세상의 한계를 벗어나 천지를 아우르는 넓은 시야와 만고의 안목을 갖추도록 이끌었다. 정씨 형제는 소옹과 인간의 본성이 천도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거듭 변론하며 하늘의 이치와 마음의 참된 본질을 탐색했고, 이처럼 치열하게 사색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학문의 걸림돌을 깨부수며 의리의 경계를 넓혀갔다.

이전까지 선천 역학은 언제나 산림 속 소수의 학문에 불과하여, 은거하는 이들이 사사로이 전하거나 방술(方術)을 연구하는 이들이나 살피던 영역이었기에 북송의 주류 사상에서 벗어나 사림의 정통 유학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역학을 점치는 술수나 자잘한 말단으로 치부하며, 하늘과 인간을 관통하고 세상의 운수를 추론하는 핵심 가치를 가벼이 여겼다. 그러나 소옹이 당대의 내로라하는 명신, 대유들과 왕복하며 도를 논하고 서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천 역학의 정통성 있는 본원과 세상을 다스리는 가치, 그리고 학문의 핵심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세속이 덧붙인 허망한 술수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소수만이 은밀하게 전하던 장벽을 허물어, 북송의 주류 학문 체계에 공식적으로 융합되었다.

소옹은 이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으니, 각 학파의 장점과 세상을 다스린 경험, 몸을 닦는 지혜가 고스란히 그의 학문 체계를 살찌웠다. 유가가 지닌 경세의 중후함, 성리학이 지닌 심성의 정미함, 명신들이 지닌 치세의 실용성은 선천 역학이 천도와 수리 추론에 치우쳐 다소 공허했던 약점을 메워주었다. 덕분에 그의 학문은 천도의 고원함과 인간 세상의 실천력, 이론의 깊이와 쓰임새의 유용함을 함께 갖추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천지의 수리와 음양의 운행에만 단편적으로 집착하지 않고, 대도를 국가와 인심, 세상사에 부합시키는 법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학문적 소양은 갈수록 완벽해지고 안목은 더욱 웅장해졌다.

그 시절 낙양성에는 도를 논하는 풍토가 크게 유행했다. 벼슬을 입은 대유와 조정의 명신, 성리학의 종사들이 서로 교류하고 깊이 이해하며 귀천을 나누지 않고 신분을 따지지 않았으며 문벌을 세우지 않은 채, 오직 대도를 높이고 학문을 벗으로 삼았다. 예법과 심성, 수리와 치세의 도리가 백가쟁명(百家쟁鳴)하듯 융합되고 온갖 꽃이 만발하니, 당대 학계에 만연했던 경직되고 각박한 폐단과 유파 간의 대립이 싹 씻겨 내려갔다. 낙수 기슭에는 학문적 정취가 융성하고 선비의 현명한 풍모가 널리 퍼져, 북송 중후기 천하 학문의 핵심 성지가 되었다.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21일 웨이보 공개)

지음이 모이니 대도는 외롭지 않았다. 소옹은 한 자락 벼짓의 지조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연결하여 선천 역학의 불씨를 크게 키우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었으며, 스스로의 천인학(天人學) 또한 더욱 원만하고 성숙하게 완성했다. 신분을 뛰어넘고 여러 학파를 융합한 이 명사들의 교유는 북송 문단에 천고의 미담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훗날 그가 책을 저술하고 학설을 세워 천고에 모범이 되고 만세에 가르침을 전하는 데 가장 두터운 시대적 배경과 학문적 토대를 다져주었다.

### 第十一章 名士相交，洛城儒風聚知音

洛陽自古文脈淵藪，至北宋中期，更是天下文臣大儒匯聚之地。朝堂勳貴、士林賢達多擇此定居，一時名公巨卿、理學先賢雲集洛水兩岸，文風之盛，冠絕中州。邵雍安居安樂窩，褪去山林孤修之氣，深諳大道需砥礪、學問需交鋒之理。其常年游走市井、觀照人間，將先天易理與世事盈虧融會貫通，學養愈發圓融厚重，心性愈發淡泊通透。雖始終布衣蔬食、隱居不仕，無官爵身位加持，但其高潔品行、絕世學識，早已在洛陽士林悄然傳揚，為當世名流所敬重。

彼時北宋朝堂，名臣輩出，司馬光、富弼、呂公著等一眾肱骨賢臣，皆立身朝堂、心懷天下，深耕儒學名理、恪守君子風骨，身居高位却不耽於權勢，畢生潛心治學、推崇教化。而程顥、程頤兄弟隱居洛城、精研義理，開創理學新脈，潛心考究心性天理，引領當世治學新風。一眾名士身居不同陣營、治學各有側重，却皆聞邵雍布衣悟道、通达天人、安貧守道的盛名，心生仰慕。世人多以功名高低論尊卑，唯獨這群當世大儒，看透皮囊身份，唯以學識風骨論知音，從未因邵雍無官無爵、身處陋巷而有半分輕慢。

自此，安樂窩車馬漸多，賢客常臨。司馬光篤實嚴謹、治學求真，敬佩邵雍超脫世俗的通透智慧；富弼歷經宦海沉浮、深諳世事興衰，折服於邵雍推演世運、洞察治亂的深遠格局；呂公著深耕儒典、恪守禮法，贊許邵雍知行合一、厚德守心的品行；二程潛心心性理學，渴求與先天易學相互印證、互補精進。眾人常於公務閒暇、治學之餘，聯袂登門，不問官場利弊、不談朝堂紛爭，唯以論道研學為樂。

每有賢客到訪，邵雍必煮茶相待、靜坐論道，陋室之內，清茶一盞、書香滿室，賓主盡歡、徹夜不倦。眾人各抒己見、互辯義理，取長補短、互為增益。名臣大儒長於儒家禮法、經世治國、修身立德，深究人世綱常、朝堂治道、民生禮法；邵雍獨擅先天數理、河洛本源、天人造化，貫通天地運化、古今世運、盛衰規律。一方立足人世、深耕聖賢入世之學，一方溯源天道、參悟天地本源之道，兩家治學路徑不同、側重各異，却同歸大道、相輔相成。

論道之間，儒家敦厚禮法、經世風骨，與邵雍先天易學、天人數理深度交融。司馬光、富弼等人以朝堂閱歷、治世經驗印證邵雍的興衰推演，讓玄妙易理更貼合家國治理、世事變遷；邵雍以天道數理、陰陽造化啟迪眾人，讓傳統儒學跳出禮法教條、人世局限，多了一層天地視野、萬古格局。二程兄弟與邵雍反復辨析心性与天道的關聯，探索天理本源、人心本真，在一次次思辨交鋒中，破除治學桎梏、拓寬義理邊界。

在此之前，先天易學始終是山林小眾之學，多為隱者私傳、方術研習，游离於北宋主流文脈之外，不被士林正統儒學所接納。世人多將易學歸為卜筮術數、小道旁門，輕視其天人貫通、推演世運的核心價值。而經邵雍與一眾當世名臣大儒往復論道、彼此印證，先天易學的正統本源、經世價值、治學內核被世人熟知認可，徹底剥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21일 웨이보 공개)

离了世俗附会的虚妄术数外衣，褪去小众隐秘的传承壁垒，正式融入北宋主流文脉体系。

邵雍于此间获益良多，各家治学所长、治世阅历、修身智慧，尽数滋养其学问体系。儒家经世之厚重、理学心性之精微、名臣治世之务实，弥补了先天易学偏于天道、数理推演的空灵短板，让他的学问兼具天道高远与人间踏实、理论精深与经世致用。不再单一执着于天地数理、阴阳运化，更懂得将大道贴合家国、人心、世事，学养愈发完备、格局愈发恢弘。

一时之间，洛城论道之风蔚然盛行。布衣大儒与朝堂名臣、理学宗师相交相知，不分贵贱、不较身份、不立门户，唯以大道为尊、以学问为友。礼法、心性、数理、治道百家交融、百花齐放，一扫当世学界僵化刻板、门户对立的弊病。洛水之畔，文脉鼎盛、贤风浩荡，成为北宋中后期天下治学的核心圣地。

知音相聚，大道不孤。邵雍以一身布衣风骨，联结当世顶级文脉，让先天易学薪火光大、深入人心，也让自身天人之学愈发圆满成熟。这场跨越身份、融汇各派的名士相交，不仅成就了北宋文坛一段千古佳话，更为其日后著书立说、垂范千古、教化万世，汇聚了最深厚的时代文气与学术底蕴。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 태원(太原) 인물(人物) 전기(傳奇)

### 곡률철전(斛律徹傳)

곡률철(斛律徹)은 병주(并州) 태원(太原) 사람으로, 자(字)는 지원(智遠)이다. 북제(北齊)의 공신이자 수(隋)나라의 어진 장수였으며, 명장 곡률광(斛律光)의 손자이자 곡률무도(斛律武都)의 아들이다. 곡률씨(斛律氏) 가문은 대대로 북쪽 지방에 살며 태원에 뿌리를 내렸는데, 여러 대에 걸쳐 장수를 배출한 가문으로서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가풍을 이어왔다. 곡률금(斛律金)이 북제의 공업을 일으킨 이래로 세대마다 북쪽 변방을 지켰으니, 그 공훈이 국사(國史)에 실렸고 명성이 변방 너머까지 떨쳤다. 곡률철은 하청(河淸) 2년에 태어났는데, 당시 곡률 가문의 공신과 귀족들이 조정에 가득했고,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삼공(三公)과 재상(宰相)의 반열에 올라 천하의 군권을 쥐고 있었다. 온 집안이 충절을 바쳐 당대에 귀함과 성함이 으뜸이었다. 곡률철은 어려서부터 장수 가문의 기질을 물려받아 도량이 침착하고 성품이 온화하며 신중하여, 사납고 거친 무인 집안의 자제들과는 달랐다.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혔고 예법과 제도에도 두루 통하여, 문무(文武)를 겸비하고 공손하며 신중한 기풍이 있었다.

무평(武平) 3년, 북제의 후주(後主)가 혼미하고 어두워 간사한 아첨꾼들이 권세를 잡고 공신들을 모함했다. 할아버지 곡률광이 죄 없이 해를 당하고, 큰아버지 곡률선(斛律羨)과 아버지 곡률무도가 잇달아 사형을 당하니, 곡률 일족이 온 집안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입어 가문이 무너졌다. 이때 곡률철의 나이는 겨우 몇 살에 불과했는데, 어린아이였기에 다행히 화를 면하고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 어릴 때 가문의 재앙을 만나 종족들이 조각나고 세상이 무너지니, 공신 가문이 멸망하고 사직이 기우는 참혹함을 몸소 겪었다. 이때부터 날카로운 기운을 거두고 마음을 가라앉혀 몸과 마음을 닦았으며, 장수 가문의 옛 공훈에 기대지 않고 귀척(貴戚)들의 허황된 부귀를 탐내지 않았다. 어지러운 세상의 침침한 흐름 속에서도 몸가짐을 공손하고 신중히 하며 스스로를 단련했고, 묵묵히 곡률씨 가문의 충성스럽고 어진 핏줄을 이어 나갔다.

건덕(建德) 6년, 북주(北周)가 북제를 멸망시키고 북방을 통일했다. 주무제(周武帝)는 곡률광이 충절을 지키다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을 기리고, 그 공신 가문이 억울하게 화를 입은 것을 가엽게 여겨 조서를 내려 표창하고 관직과 작위를 되살려 주었으며 남겨진 고아들을 구출했다. 곡률철은 충신과 열사의 후손으로서 사지절(使持節)·의동대장군(儀同大將軍)을 제수받았고, 할아버지의 작위인 송국공(崇國公)을 이어받았으며 5,000호의 식읍(食邑)을 받았다. 세상을 뒤바꾸는 정권 교체기에 전조(前朝)의 귀족들이 대부분 벼슬에서 쫓겨나고 종족들이 흩어졌으나, 유독 곡률철만은 살아남은 고아의 몸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작위를 이어받아 새 왕조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삼가고 신중하게 공무를 받들었고, 일을 처리함에 공정하고 법도가 있었으며, 군대를 다스릴 때는 침착하고 묵직하여 세도가문 특유의 교만하고 방자한 버릇이 없었기에 조야(朝野)의 공경을 받았다.

수나라가 일어나 북주의 선양(禪讓)을 받으니 온 나라가 안정되고 천하가 전쟁을 멈추었다. 곡률철은 대수(大隋)에 계속 출사하여 관직이 예전과 같았고, 마침내 우차기장군(右車騎將軍)으로 승진하여 궁궐을 지키고 금군(禁軍)을 총괄했다. 수문제(隋文帝)가 처음 천하를 정한 뒤, 북제 귀족들의 사치스럽고 오만방자한 폐단을 징계하고 자 조정의 공신들을 정돈하고 관리의 다스림과 군공의 상벌을 엄격히 했다. 곡률철은 고금의 성쇠와 가문의 흥망에 관한 이치를 깊이 깨닫고 있었기에, 무관의 직책에 있

##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21일 웨이보 공개)

으면서도 자신을 낮추고 어수룩함을 지켰으며, 공무를 받들고 법을 지키며 군대를 엄하게 다스렸다. 도성을 지킨 지 수십 년 동안 직분에 온 힘을 다해 한 번도 허물이 없었다. 권세가들과 결탁하지 않고 개인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며 맑고 담박하게 스스로를 지켰으니, 공손하고 신중하며 충성스럽고 정성어린 태도로 입신(立身)하여 말세 귀족들의 교만하고 방자한 폐단을 씻어냈다. 개황(開皇) 11년, 조정에서 옛 공신들을 다시 논할 때 다시 송국공에 봉해졌으니, 가문의 내력에 서린 충절과 몸가짐이 맑고 신중함을 표창한 것이었다.

개황 15년, 경사인 대흥성(大興城)에서 세상을 떠나니 나이가 겨우 서른셋이었다. 조정에서는 그가 부지런하고 신중했던 것을 가엽게 여겨 장례를 넉넉하게 치르도록 하사했고, 개황 17년에 병주 태원성 북쪽에 귀장(歸葬)했다. 그의 무덤이 후대에 출토(出土)되었는데, 묘지명(墓誌銘)이 상세하여 그의 가문 내력과 관직 이력, 그리고 두 왕조의 흥망을 기록하고 있었다. 무덤 속 문물들이 정교하고 오묘하여, 서역 호인(胡人)의 낙타 도자기 인형과 수레 및 말 등의 기물이 고루 갖추어져 있었다. 이는 북조에서 수나라에 이르는 진양(晉陽)의 풍물과 변방의 민속, 그리고 호한(胡漢) 융합의 융성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병주의 북조 및 수나라 시대 군정(軍政)·종족·문화예술을 고증하는 귀중한 물증이 된다. 곡률철의 일생을 통틀어 보면, 가문이 번성할 때 태어나 외롭고 고달프게 자랐으며, 북제·북주·수나라의 세 조정을 거치며 사직의 교체와 가문의 흥망성쇠를 모두 겪었다. 그러나 가문의 배경을 믿고 교만하지 않았고, 외롭고 고달프다고 해서 뜻을 꺾지 않았다.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몸을 지켰고 성평(盛平)한 세상에서는 공무를 받들었으니, 곡률 가문의 백 년에 걸친 충용(忠勇)의 맥을 이어 북조 장수 가문의 마지막 풍골을 온전히 보전한 인물이었다.

### 斛律彻传

斛律彻，并州太原人，字智远，北齐勋臣、隋代良将，名将斛律光之孙，斛律武都之子也。斛律氏世居北地，扎根太原，累世将门，忠勇传家。自斛律金肇基北齐勋业，世代镇守北疆，功载国史，名震塞外。彻生于河清二年，时斛律家族勋贵满朝，父兄位列台辅，掌天下兵甲，一门忠烈，贵盛当世。彻幼稟将门骨血，器度沉静，质性温谨，异于悍勇粗率之武家子弟，少习弓马，兼通礼度，文武兼修，素有恭慎之风。

武平三年，北齐后主昏聩，奸佞擅权，构陷勋臣。祖父斛律光无辜遇害，伯父斛律羨、父斛律武都相继伏诛，斛律一族举家罹祸，门庭倾覆。是时彻年仅数岁，以稚童之身，幸得豁免，保全性命。幼逢家难，宗族凋零，世局崩乱，亲历勋门覆灭、社稷倾颓之惨。自此敛藏锐气，沉心修身，不恃将门旧勋，不慕贵戚浮华，身处乱世浮沉，守身恭谨、砥砺自持，默默存续斛律氏忠良遗脉。

建德六年，北周灭齐，北方一统。周武帝感念斛律光忠烈殉国，悯其勋门冤屈，下诏旌表、追复官爵、存恤遗孤。彻以忠烈后裔，授使持节、仪同大将军，袭祖父崇国公爵，食邑五千户。乱世鼎革之际，前朝勋贵多遭贬黜，宗族零落，独彻以遗孤之身，承袭世爵，立身新朝，恪谨奉公，处事公允有度，治军沉静持重，无世家骄矜之习，得朝野敬重。

隋兴代周，海内底定，天下休兵。彻续仕大隋，官阶如故，累迁右车骑将军，宿卫宫禁、执掌禁军。隋文帝初定天下，惩北齐勋贵奢靡跋扈之弊，整肃朝堂勋臣，严苛吏治军功。彻深谙古今盛衰、家族兴亡之理，身居武职，低调守拙，奉公守法，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21일 웨이보 공개)**

治军严谨，宿卫京畿数十载，恪尽职守、未尝有过。不结权贵、不谋私恩，淡泊自持，以恭慎忠谨立身，洗刷末世勋贵骄纵之弊。开皇十一年，朝廷重论勋旧，复封崇国公，旌其家世忠烈、立身清谨。

开皇十五年，薨于京师大兴城，年仅三十三。朝廷悯其勤谨，赐葬优厚，开皇十七年归葬并州太原城北。其墓于后世出土，墓志详实，纪其家世履历、两代兴亡，墓中文物精妙，胡人驼俑、车马器用俱全，尽录北朝至隋晋阳风物、边塞民俗、胡汉交融之盛，为考证并州北朝隋代军政、族群、艺文之珍贵物证。纵观彻之一生，生于勋盛，长于孤苦，历齐、周、隋三朝，阅尽社稷更迭、家族盛衰。不以家世矜贵，不以孤苦堕志，乱世守身、盛世奉公，接续斛律家族百年忠勇文脉，保全北朝将门最后的风骨。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풍수 사례(2026년6월21일 웨이보 공개)

알아볼 수 있겠는가?(能不能看出来?)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2년이 흘렀을 때, 갑자기 실체 없는 형상으로 돌아왔다  
(公婆走后两年, 突然变成虚幻影子回来了.)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21일 웨이보 공개)

《신의천진(神醫天真)》 4

량중자(良中子)는 곧 안도 쇼에키(安藤昌益)로, 일본 에도 중기의 지명도 있는 민간 의사와 사상가이다. 평생 의술과 본초(本草)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동시에 사방을 유람하며 독창적인 학술 이념을 형성했다. 《신의천진》은 그의 핵심 의학 저작으로, 책 전체가 천진원기(天真元氣)를 근본적인 입론으로 삼아 인체와 천지만물이 모두 일원원기(一元元氣)로 화생한다고 보았으며, 음양(陰陽)이 서로 소통하고 순환하며 상생한다는 전체적인 관점을 견지하여 전통적인 완고한 음양오행(五行) 인식을 타파했다.

해당 서책은 특색 있는 진료 체계를 형성했는데, 얼굴 부위의 망진(望診)을 중시하여 얼굴 부위와 오관을 장부(臟腑)에 대응시켜 병소와 병세를 판단했다. 시치(施治) 이념에 있어서는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주장하여, 온몸의 원기를 조화롭게 하고 신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으며 독한 약으로 강하게 공격하는 것을 추종하지 않았다.

이 저작은 의학 이론과 자연 철학을 깊이 결합하여, 전통 의학 이론의 정수를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색을 융합했으니, 일본 근세 민간 의학 중에서 풍격이 선명하고 사상이 심오한 고전이며, 당시 동아시아 민간 의술과 사상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참고를 제공한다. 연재의 네 번째.

良中子即安藤昌益，是日本江戸中期知名民间医者与思想家，一生钻研医术、本草之学，同时游历四方，形成了独树一帜的学术理念。《神医天真》是其核心医学著作，全书以“天真元气”

为根本立论，认为人体与天地万物皆由一元元气化生，秉持阴阳互性、循环相生的整体观念，打破传统僵化的阴阳五行认知。

该书形成了特色诊疗体系，重视面部望诊，以面部部位、五官对应脏腑来判断病灶与病情。在施治理念上，主张顺应自然规律，以调和周身元气、恢复机体平衡为核心，不推崇猛药强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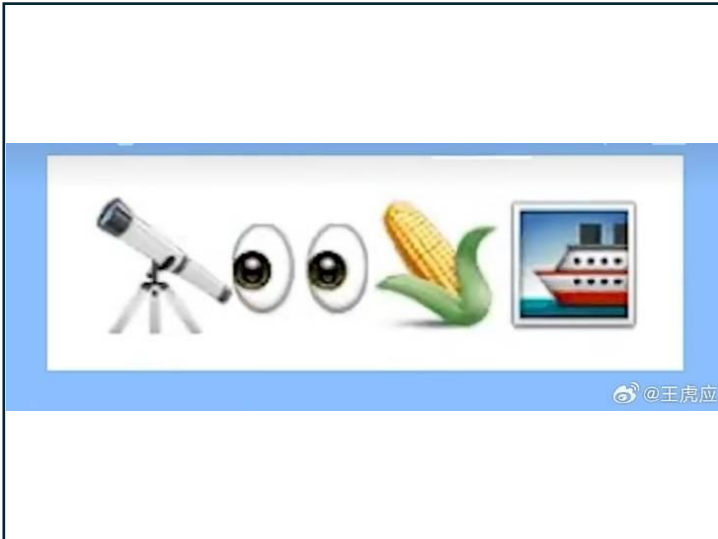
这部作品将医学理论与自然哲学深度结合，既吸纳传统医理精华，又融入自身独到思考，是日本近世民间医学中风格鲜明、思想深刻的典籍，也为研究当时东亚民间医术与思想文化提供了珍贵参考。连载之四。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21일 웨이보 공개)**

자료 없음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